

선사 및 고대 울릉도의 역사지리적 위치 검토*

-환동해 교류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고 일 흥**

한 지 선, 최 영 은***

목 차

- I. 머리말
- II. 환동해 서쪽 해역에서의 해상 교류: 선사시대를 중심으로
- III. 울릉도의 고고학 및 문헌 자료 검토:
환동해 교류 관련 시사점을 중심으로
- IV. 환동해 교류망의 재생산과 울릉도의 역할
- V. 맺음말

국문초록 | 울릉도는 부속된 44개 섬과 함께 동해 유일의 도서군을 이루어, 그 지정학적 위치나 교통로 상에서의 중요성이 주목되어 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동해상에 격리되어 망망대해의 한 가운데 고립된 섬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관점을 도입하여, 이처럼 '고립된 노드'로 볼 수 있는 울릉도로 '링크'가

* 본 연구는 2021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연구기반구축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Asi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 제1저자 高一弘,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mahari95@snu.ac.kr

*** 교신저자 韓志瑄, 서울대 국사학과 석사수료, 崔瑛恩, 서울대 국사학과 석사수료
투고일: 2021. 11. 24. 심사완료일: 2021. 12. 12. 게재확정일: 2021. 12. 16.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1.41..107>

만들어져 환동해 서쪽 구역에서의 네트워크 연결성이 어떻게 증대되어 ‘작은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울릉도가 포함된 환동해 서쪽 해역에서의 해상 교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확보하기 위해 동해안을 따라 진행되었던 고대 교류의 증거들을 통시적으로 조망하였으며, 그 결과 동해안을 따라 일어났던 교류의 동인, 역학 등에 대한 시사점을 확보하였다. 그런 다음, 울릉도의 연결성에 초점을 맞추며 울릉도의 고고학 자료와 문헌 자료를 재검토하여, 환동해 교류 네트워크에서 울릉도의 위상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울릉도에 분포하는 신라 고분 자료에 대한 분석과 그 등장 배경 및 계통에 대해 고찰하고, 512년 이사부(異斯夫)의 출항지에 대한 제설과 신라 진출 이전 울릉도 선주민의 양태를 다룬 문헌을 검토하고, 울릉도와 독도를 경유하는 동해 항로에 대한 연구사와 관련 물질자료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울릉도의 소통성·연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환동해 교류의 역학에서 이 섬의 역할에 대한 제고를 도모했을 뿐만 아니라, 울릉도 문화유산의 가치 함양을 위한 전략도 제시하였다.

핵심어 | 환동해 교류, 네트워크, 울릉도, 우산국, 신라, 석실묘, 해양, 동해 항로

I. 머리말

고고학과 인류학에서 ‘섬’을 바라보는 시각은 1980년대에 들어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섬을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그 경계가 명확히 규정된 지리적 단위로 인식하여, ‘격리’, ‘폐쇄’, ‘고독’와 같은 키워드와 연관시켰다. 반면 그 이후에는 바다를 장벽이 아닌 연결의 징검다리, 심지어는 연결성을 가속화시키는 일종의 고속도로로 보는 관점이 확산되면서, 섬과 섬, 그리고 섬과 육지의 관계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21세기에 들어와 서양 고고학·고대사·인류학에서는 섬과 그 주변 바다의 경관을 통틀어서 하나의 경관으로 접근하고 - 이것을 영문으로는 “islandscape”이라고 부른다¹⁾ - 그 경관 속에서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 경향이

1) Broodbank, C., *An Island Archaeology of the Early Cyclad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p. 21-22.

정착하게 되었다.²⁾

바다와 섬의 연결성에 대한 재조명은 국내 학계에서도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소통성과 고립성이라는 섬의 양면적 속성에 중점을 두면서 인문학적 섬 개념을 제기한 이는 강봉룡이다.³⁾ 그는 “바다를 교류의 길로 인식하면 섬은 바닷길을 매개해 주는 소통의 징검다리로 간주된다. 바다를 장애물로 인식하면 섬은 그 바다에 의해 단절되는 고립공간으로 간주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근래에 섬의 고립성만을 강조하는 ‘insularity’ 대신에 고립성(폐쇄성)과 소통성(개방성)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islandness’라는 신조어를 새로 만들어 써서 양면적 ‘섬성’을 온전히 담아내자는 제안이 유럽 학계에서 제기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기원전 3세기부터 한반도 해역의 소통성을 조망한 강봉룡의 논고에서 언급되는 섬 중 하나가 바로 울릉도이다. 그런데 서해와 및 남해 해역에서 해양 교류의 증거들이 층층이 중첩되어 바다와 섬들의 소통성에 대한 그림이 매우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것과 달리, 동해 해역의 울릉도에 대한 언급은 매우 소략하여, 이 섬과 그 주변 바다의 연결성의 의의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이는 무엇보다도 울릉도에 관한 문헌 사료의 빈약함 때문이겠지만, 지난 십여 년간 울릉도에 대한 고고학 조사의 성과들이 축적되면서 울릉도의 연결성에 대한 단서들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또한 최근 들어 고대 환동해 지역에서의 교류에 대한 논의가 발전하면서 통시적 맥락 속에서 울릉도와 관련된 해양 교류의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본고의 제2장에서는 환동해 권역의 서쪽 해역인 동해안을 따라 진행된 고대 교류의 증거들을 선사시대를 중심으로 조망하도록 하겠다. 물론

2) Boomert, A & Bright, A. J., “Island Archaeology: In Search of a New Horizon”, *Island Studies Journal* 2(1), 2007, pp. 9-10.

3) 강봉룡, 「‘섬의 인문학’ 담론-섬과 바다의 일체성과 양면성의 문제-」, 『도서문화』 44, 2014, 15쪽.

이 중에는 육로가 아닌 해로를 통해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 사례들이 많지는 않다. 그래도 동해안을 따라 일어났던 교류의 동인, 역학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울릉도가 포함된 환동해 서쪽 해역에서의 해상 교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제3장에서는 울릉도의 연결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문헌 자료와 최신 고고학 자료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울릉도의 역사지리적 위치가 어떻게 환동해 교류망의 재생산에 기여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울릉도의 소통성·연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환동해 교류의 역학에서 이 섬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Ⅱ. 환동해 서쪽 해역에서의 해상 교류: 선사시대를 중심으로

한반도와 울릉도를 연결했던 해상 교류망의 가장 오래된 증거로는 울릉도 현포리, 저동리, 남서리에서 확인된 고인돌, 홍도, 무문토기, 마제석기가 언급된 바 있다.⁴⁾ 이와 같은 청동기시대 문화 요소들이 울릉도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시간적 지체가 있었을지라도, 기원 전후 이전부터 울릉도와 한반도 동해안 사이에 해상 교류가 일어났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런데 해상 교류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다를 통해 교류하고자 하는 욕구, 바다로의 진출을 지원해주는 이동 수단, 그리고 해류, 조류, 바람에 관한 지식 등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즉, 환동해 서쪽 해역에서는 이미 해상 교류의 기반이 존재했기에, 울릉도와 한반도 사이에 사람과 사물과 생각이 오갔다고 볼 수 있다.

4) 최몽룡 외, 『鬱陵島: 考古學的 調査研究』, 서울大學校 博物館, 1998; 國立中央博物館, 『鬱陵島』, 2008.

환동해 서쪽 해역에서 일어났던 해상 교류의 가장 오래된 증거는 흑요석이다. 한반도 남부지역의 사천 늑도, 울산 신화리, 순천 월평, 장흥 신평과 같은 구석기시대 유적에서는 일본열도의 흑요석이 확인된 바 있고, 남해안 지역의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흑요석도 그 원산지가 일본열도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⁵⁾ 물론 한때 한반도와 일본 규슈 지역을 잇는 육로가 존재했었다는 점에서 환동해 서남쪽 해역에서의 해상 교류망이 구석기시대부터 작동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신석기시대부터는 이와 같은 해상 교류망이 구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석기시대 해상 교류망이 환동해 서남쪽 해역뿐만 아니라 동해안을 따라 연해주 지역까지 작동했을 가능성은 결상이식(缺狀耳飾)의 분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환동해 지역은 물론, 동아시아 세계 전역에 걸쳐 공유되었던 ‘가장 균질적인 문화 요소’⁶⁾로 규정된 바 있는 결상이식은 동해안을 따라서는 연해주 지역의 초르타브 바로타(Chertovy Vorota), 보이스만(Boisman) 2,⁷⁾ 송기 웅평, 고성 문암리, 그리고 동남해안의 여러 유적들에서 확인된 바 있다. 제주도과 동남해안 유적들에서 출토된 결상이식의 경우에는 환동해 서쪽 해역의 교류망과는 별도의 메커니즘을 통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평양 사동리 출토품이 결상이식의 기원지인 흥룡와(興隆窪, Xinglongwa) 문화의 제품들과 유사하고, 또한 압날점열문 토기만 확인된

5) 장용준, 김종찬, 「한반도 출토 선사시대 흑요석 원산지 연구」, 『韓國考古學報』 111, 2019.

6) Bausch, I. R. “Prehistoric networks across the Korea Strait (5000-1000 BCE): ‘Early globalization’ during the Jomon period in northwest Kyushu?”, In T. Hodos (ed.), *The Routledge Handbook of Archaeology and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2017, pp. 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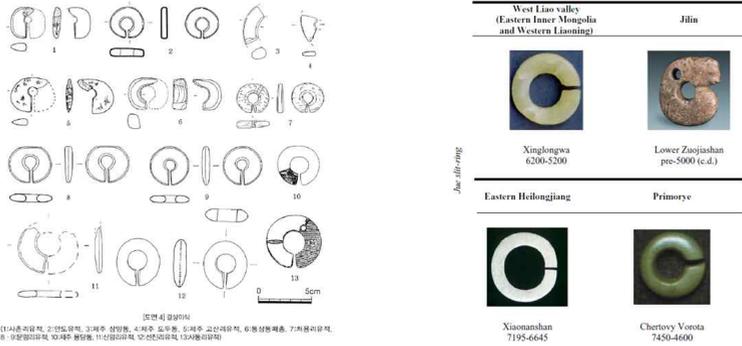
7) Li, T., N. Chao, I. S. Zhushchikhovskaya, M. J. Hudson, & M Robbeets, “Millet agriculture dispersed from Northeast China to the Russian Far East: Integrating archaeology, genetics, and linguistics”, *Archaeological Research in Asia* 22 100177, 2020, 14쪽.

제주도 삼양동 유적 출토품이 용기문토기와 공반된 남해안 지역 유적들의 결상이식에 선행하는 만큼,⁸⁾ 서해안을 통과하는 교류망을 통해서도 일부 결상이식이 유입되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동해안 유적 출토 결상이식은 어떠한가?(<그림 1> 참고) 고성 문암리 결상이식의 결구가 연해주 지역 출토품과는 달리 ‘실 자르기’가 아닌 ‘돌 자르기’를 통해 만들어졌음이 확인된 바 있어,⁹⁾ 연해주 지역으로부터 결상이식 완제품이 유입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결상이식의 아이디어가 연해주 지역으로부터 남하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보이스만 2 유적에 선행하는 루드나야 문화의 초르타비 바로타 유적의 중심연대가 기원전 5,726 - 5,622인 것으로 비정된 바 있다. 또한 신석기시대 평저토기의 영향 관계를 보면, 동해안 중부 지역 평저토기의 영향이 남해안 지역 용기문토기에서는 보이는 반면, 남해안 지역의 용기문토기는 물론, 인부마연석부나 결합식조침 변이의 영향이 동해안 중부 지역의 유적들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¹⁰⁾

8) 하인수, 「즐문토기사회의 이식에 관한 시론」, 『중앙고고연구』 2019, 21쪽.

9) 김은영, 「고성 문암리유적을 통해 본 신석기시대 평저토기문화의 전개」, 『문화재』 40, 2007. 188쪽.

10) 김은영, 위의 논문, 199쪽.



<그림 1> 한반도(왼쪽) 및 중국 동북지역·연해주(오른쪽) 출토 결상이식
 (왼쪽: 하인수, 앞의 논문, 2019, 19쪽 인용,
 오른쪽: Li 외, 앞의 논문, 2020, 14쪽 인용)

청동기시대에 들어와서는 한반도 동북 지역과 연해주 지역의 주민들이 남쪽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신뢰도 높은 증거가 확인된다. 토기 자료를 배제하더라도, 교역이나 전파의 산물로 보기 어려운 새로운 주거 건축기술과 내부공간 사용방식의 정착이 이를 입증한다.¹¹⁾ 동북형석도 역시 석기의 기능 추정으로 미루어볼 때 주민 이주의 증거로 볼 수 있다. 동북형석도는 두만강 유역, 길림 지역, 그리고 연해주 지역의 유적들과 동해안을 따라 분포하는 유적들에서 주로 확인된다. 또한 북한에서는 서수라, 라진 초도, 금야 유적에서, 그리고 남한에서는 강릉, 포항, 울산 지역의 유적들을 중심으로 동북형석도가 출토되었다. 이러한 동북형석도는 벌목이나 건축 등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 세트가 이미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존의 석기 구성에 추가되었던 석기라고 한다. 따라서 당시의 삶에 필수적인 공구였다기보다는 특정한 종류의 생활방식에 사용되었던 장비(가령,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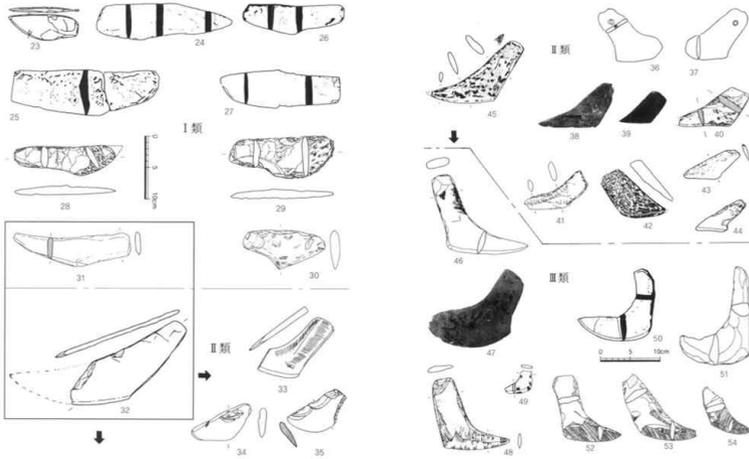
11) 고일홍, 『한국 청동기시대 이주 연구 -문제점 검토와 새로운 대안 모색-』, 『韓國青銅器學報』 25, 2019.

용 나이프')로 여겨지고 있다.¹²⁾ 이와 같은 성격의 장비는 교역품일 가능성이 낮은 만큼, 이주하는 집단과 함께 남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동해안 지역의 유적들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동북형석도의 등장 맥락을 살펴보면 의미심장한 사실들이 확인된다. 남한 지역에서는 특히 포항-경주의 형산강 유역과 울산의 태화강 유역을 중심으로 동북형석도 출토 유적들이 밀집 분포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형산강 유역과 태화강 유역의 가장 이른 단계에는 압록강 중상류 지역의 문화요소는 보이나, 두만강 유역의 문화요소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동북형석도를 사용했던 집단들은 청동기시대 '전기'의 후반부 무렵에 형산강 유역과 태화강 유역의 기층문화 속으로 유입되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¹³⁾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동북형석도를 사용했던 집단들은 이주민 중에서도 미지의 땅이나 새로운 농경지를 찾아 나선 '개척자'였기 보다는 기존의 상호 작용망을 통해 확보해 둔 선지식을 바탕으로 이 지역으로의 이주를 선택하고 재지 사회 속에서 또 하나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갔던 '유입민'이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이들의 이주의 메커니즘은 무엇이었는가? 형산강 유역과 태화강 유역의 동북형석도 출토 유적들보다 앞선 시기로 편년된(3,230 BP의 방사성탄소연대) 강릉 교동 3호 주거지에서 동북형석도가 출토된 사실로 미루어보아, 동북형석도 사용 집단들이 동해안 상호작용망의 거점들을 활용해서 해상으로 점진적으로 남하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그림 2> 참고).

12) 裴眞晟, 「東北型石刀에 대한 小考 - 東海文化圈의 設定을 검하여 -」, 『嶺南考古學報』 40, 2007, 10쪽.

13) 裴眞晟, 「靑銅器時代의 蔚山와 豆滿江流域」, 『청동기 시대 울산 태화강문화』, 울산문화재단연구원, 2010; 이도현, 「형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통해 본 문화변동양상」, 『韓國靑銅器學報』 17, 2015.



<그림 2> 한반도의 동북형석도 출토품으로, 왼쪽 하단의 34번이 강릉 교동 3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동북형석도이다. (배진성, 앞의 논문, 2007, 12-13쪽 인용)

물론 거점 간 해상 이동을 통한 남하의 직접적인 증거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방사성탄소연대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 신석기시대 농경민 집단들이 지중해 서쪽 해안선을 따라 육로가 아닌 해로를 통해 서쪽으로 이주했음을 증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모델¹⁴⁾을 향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모델에서는 해안가의 가장 이른 신석기시대 유적들의 분포와 방사성탄소연대측정치들을 종합하여, 내륙에서의 신석기시대 농경민 집단 확산의 평균속도가 1년에 1km 전진이었던 것에 비해, 해안선을 따라서는 1년에 평균 5km로 전진했음을 추산하여, 해안가를 따라 진행된 해상 이주를 상정하였다.

환동해 서쪽 해역에서 일어났던 해상 교류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보다

14) Isern, N., Zilhão, J., Fort, J., & Ammerman, A. J., “Modeling the role of voyaging in the coastal spread of the Early Neolithic in the West Mediterranea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4 (5), 2017.

도 사천 늑도의 원형 및 방형 주거지에서 확인된 쪽구들 시설이다. 철기시대(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전후 무렵) 동안 활발한 국제 교역의 무대였던 늑도 유적은 흥미롭게도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 쪽구들이 등장한 곳이기도 하다. 남부 지역은 부뚜막이 발달해온 곳도 아니니, 늑도의 쪽구들은 북쪽에서부터 해양을 통해 돌연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늑도 B지구에서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 계통 토기가 확인된 바 있어 그 기원지를 구체적으로 연해주 지역으로 비정하고 있다.¹⁵⁾ 그런데 연해주 집단들이 국제 교역항 늑도에 거주했음은 곧 연해주와 늑도 사이의 항해가 양방향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결국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환동해 서쪽 구역에서는 늦어도 신석기시대부터 해상 교류망이 작동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반도의 동해안을 따라 일어났던 교류의 방향뿐만 아니라, 그 구간의 길이도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동북형석도와 함께 이주해 내려온 집단들은 동지중해의 그 유명한 울룬부른 난과선에 댕던 이들과 마찬가지로 해안선의 거점들을 따라 노선하향식 물품 교환을 수행했던 집단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반면, 사천 늑도를 오고 갔던 연해주 집단들은 훨씬 더 장거리의 항해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환동해 서쪽 구간에서의 항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의 축적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험들이 결국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의 해상 교류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을 것이다.

15) 예를 들어, 송기호, 『한국 온돌의 역사』, 서울대학교출판부문화원, 2021.

Ⅲ. 울릉도의 고고학 및 문헌 자료 검토: 환동해 교류 관련 시사점을 중심으로

1. 환동해 교류 관련 울릉도의 고고학 자료

울릉도에 있는 고적에 대한 인식은 《鬱陵島圖形》, 《海東地圖》 등의 조선 후기 고지도에서부터 확인된다. 별도로 그려진 울릉도 지도에서 돌로 만든 무덤을 의미하는 ‘石葬’, 건물터의 터를 의미하는 ‘基址’와 같은 유형의 지명이 섬 전역에 산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석장’으로 표현된 무덤이 고려 전기 이주자들의 무덤, 즉 고분을 가리키는지, 비교적 최근 사람들의 무덤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¹⁶⁾ 다만 석장이 10여 곳 있다는 주기(註記)가 달린 울릉도의 서·남쪽 방면에 태하리 고분군, 남양리 고분군, 남서리 고분군 등 통일신라시대 고분이 분포하고 있는 사실은 흥미로운 점이다.

울릉도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었다.¹⁷⁾ 도리어 류조(鳥居龍藏)가 1917년 울릉도를 방문하여 현포리, 천부리, 남양리, 남서리 등지에서 유물을 채집하고 고분을 조사하였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울릉도 채집 유물 및 유리건판 사진을 통해 대략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광복 후 1957년과 63년 두 차례에 걸쳐 국립박물관 주도로 현포리, 남서리, 사동리, 천부리 일대의 고분과 유물산포지를 측량, 발굴 조사하였다. 특히 1963년에는 천부리 1호분과 미도굴분이었던 2호분 등을 발굴하였다. 이때의 조사 성과는 2008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하여 다시 정리되어 《鬱陵島》라는 종합 고적조사보고서로 재발간되었다.

90년대 말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청동기시대로 추정되는 유구와 유물

16) 허정백, 「고지도를 통해 본 조선후기 울릉도 지리인식」, 『지역과 역사』 17, 2005, 180~181쪽.

17) 울릉도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의 현황은 國立中央博物館, 앞의 책, 2008, 24~26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을 확인하였으며, 영남대학교 박물관에서는 현포리 석주열 유적을 시굴 조사하여 통일신라 제의 유구였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2001년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주도의 지표조사 결과 《문화유적분포지도-울릉군》이 간행되어 울릉도의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의 고고·민속·자연문화유산의 전반적인 분포가 파악되게 되었다.¹⁸⁾ 그리고 2000년대 후반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이 대두하면서 울릉도의 고대 사회와 문화를 복원함과 동시에, 나아가 독도에 대한 역사·고고학적인 학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공동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¹⁹⁾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축적된 울릉도의 고고학 자료 중 먼저 검토해보아야 하는 것이 청동기시대 문화 요소의 실체이다. 초창기 발굴보고서에서는 세 지점에서 확인된 기반식 고인돌, 소량의 무문토기(홍도 포함), 그리고 청동기시대 이후로 잘 사용되지 않은 연석 및 석봉도의 존재를 근거로 울릉도에서 기원전 4-3세기에는 주민이 거주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²⁰⁾ 그러나 이후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서 통일신라 시기까지 장기간 사용된 적갈색 연질토기의 연대를 6세기 이전으로 올려볼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이에 연질토기를 근거로 6세기 이전의 정착민을 상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피력되었다.²¹⁾

18)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文化遺蹟分布地圖 -鬱陵郡-』, 鬱陵郡·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2.

19) 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주도로 독도 문제와 함께 다루어졌다. 이때의 주요 연구 성과로는 노혁진·오강원·김종규, 『울릉도의 고대 유적과 유물』, 동북아역사재단, 2009; 이성주 외, 『한반도 고대문화 속의 울릉도 - 토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10 등이 있다.

20) 최몽룡 외, 앞의 책, 1998, 114쪽.

21) 이성주, 「울릉도의 고분문화와 신라토기-고대국가 신라의 한 지방으로서 울릉도 지역문화의 특수성」, 『한반도 고대문화 속의 울릉도 - 토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10, 46~49쪽; 이청규, 『해상활동의 고고학적 기원과 전개』, 경인문화사, 2016, 310쪽.

이와 관련하여, 우선 소위 '홍도'로 규정된 바 있는 현포리 채집 서울대박물관 토기분석 시료 UL-1, UL-2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시료의 경우 육안상으로는 표면에 점토를 덧칠하여 매끄러운 편이라고 기술되어 있으나,²²⁾ 보고서 사진을 통해서는 홍도 여부를 파악하기란 어렵다. 또한 보고서에서도 UL-2 시료의 경우에 930°C에서의 소성을 의미하는 플라이트 현상이 확인되어, 일반적인 홍도보다는 그 시기가 늦을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다.²³⁾ 그러나 이 시료들에 대한 추가적인 관찰 혹은 분석결과 없이, 적갈색 연질토기가 통일신라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6세기 이전 토기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위 '청동기시대 토기'의 실체를 규명하는 작업은 향후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²⁴⁾

한편, 현포리, 남서리, 지동리에서 확인된 고인돌은 유사한 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 고인돌의 축조가 역사시대인 기원후 3세기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반드시 기원전 울릉도 주민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래도 최소한 기원후 3세기 무렵에 두께 1-2m, 장축 3.5-4.2m에 달하는 상석을 운반할 수 있는 규모의 집단이 울릉도에 거주했다는 방증은 된다. 1998년 서울대박물관의 조사 이후에 진행된 지표·발굴조사에서는 청동기시대 유물·유적의 존재를 확인한 바가 없어 여전히 그 존재는 미지수라고 하지만,²⁵⁾ 현포리를 중심으로 신라 점령 이전의 고고학적 흔적을 찾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가 수행된다면 새로운 자료의 발견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울릉도에서 확인된 고분군의 수는 26개소 80여 기로, 그중 발굴

22) 최몽룡 외, 앞의 책, 1998, 87쪽.

23) 최몽룡 외, 위의 책, 96쪽.

24) 최몽룡 외, 위의 책, 87쪽.

25) 노혁진, 「울릉도의 고대 유적유물과 고고학적으로 본 우산국」, 『이사부와 동해』 8, 2014, 31~33쪽.

조사된 고분은 20여 기에 불과하다. 중·대형급 석실은 주로 울릉도의 북부인 현포리, 천부리 일대와 남서부의 남양동, 남서리 일대에 밀집되어 있다 (<그림 3> 참고). 고분은 대체로 바다가 보이는 해안 일대의 낮은 구릉지대 또는 바다가 조망되는 높은 산지의 경사면에 입지하며,²⁶⁾ 주요 고분군의 분포는 <그림 3>과 같다. 울릉도에 조영된 고분은 대부분 돌을 쌓아 만든 것들로, 지상 위에 축대를 만든 후 석실을 구축하고, 상부를 돌로 덮은 독특한 형태이다. 축대를 쌓은 것은 성인봉을 중심으로 해안가를 향해 급하게 경사진 형태를 띠는 울릉도의 지형을 고려하여 지면을 편평하게 정지(整地)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지와 봉분 조성 과정에²⁷⁾ 흙 대신 돌을 사용한 것은 흙을 구하기 어려운 울릉도의 지역적 특징에서 기인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봉분재로 흙을 사용할 경우, 바람과 우수 등에 의해 봉토가 유실될 우려가 높다는 점 역시 고려할 수 있다.²⁸⁾ 매장주체시설은 할석을 쌓아 벽체를 쌓고, 10매 내외의 장대석으로 천장을 덮었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 다수이다. 석실 내부와 고분 주변에서 인화문 토기를 비롯한 회청색 경질 토기와 함께 적갈색, 회백색 토기 등이 주로 출토되고 있다. 천부리 1호분에서는 금동·청동제 방울, 십금구(辻金具) 등의 마구류와 같은 금속 유물이 출토된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현포리 고분군 일대에서 채집되었다고 전해지는 동관(銅冠) 편도 존재한다.

26) 金夏奈, 『鬱陵島 横口式石室墓의 源流에 대한 研究』, 東亞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2006, 9쪽.

27) 석실을 덮을 때 일부 흙을 사용한 경우도 있지만 매우 예외적이고, 대부분 할석 혹은 천석을 사용하였다. 봉석부(封石部)로 칭하기도 한다(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2008, 196~197쪽.).

28) 홍보식, 『통일신라시대 울릉도의 고분 구조와 축조 배경』, 『嶺南考古學』 84, 2019, 121쪽.



<그림 3> 울릉도 주요 고분의 분포 (저자 제작 이미지 ©한지선·최영은)

울릉도에 남아있는 다수의 고분이 이미 도굴·파괴되었기 때문에, 유구의 수에 비해 내부에서 확인되는 부장품의 수량이 적은 편이다. 유물산포지에서 지표수습·채집된 유물 또한 이전부터 주민들에 의해 수습되고 전해지는 등 출토 위치가 부정확한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고분 자료와 수습 유물은 6세기 이후 고대 울릉도의 문화상을 복원하기 위한 고고학적 증거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상 위에 축대부를 만들어 그 위에 석실을 축조하고, 석실 상면에는 돌을 이용한 봉분을 마련한 형태가 대부분인 울릉도의 고분들은 구조상으로는 크게 축대부(기단부), 석실부, 봉석부로 나눌 수 있다. 매장주체부인 석실의 평면은 장방형, (타)원형, 제형 등 다양한데, 대부분 길이:너비의 비율이 3:1 이상으로 세장한 모습이다. 높은 축대를 만들고 봉토 대신 봉석을 사용한 것은 울릉도의 자연환경에 맞춰 구조를 변형한 결과로 해석된다.²⁹⁾ 즉 울릉

29) 김원용, 『鬱陵島: 國立博物館古蹟調查報告 第4冊』, 國立中央博物館, 1963; 崔夢龍 外,

도에서는 흙을 구하기 어렵고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석재를 재료로 하여 배수에 편리한 지상식 묘제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석실을 내경하게 쌓고 후미의 폭을 줄이는 방식³⁰⁾ 또한, 경사지가 많은 울릉도 지형상 평탄면적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견해도 있다.³¹⁾

1998년 서울대학교 박물관의 조사보고서 이후 여러 연구 논문³²⁾에서는 울릉도 고분의 매장주체부를 황구식석실로 보고 있다. 무덤 입구와 현실 사이에 연도가 없다는 점에서 황혈식석실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황구식석실은 황혈식석실과 마찬가지로 추가장이 가능하지만, 현실로 들어가는 통로인 연도가 없고 입구만 설치된 구조이다. 그래서 황혈식석실과는 달리 입구 근처부터 석실 내부까지의 천장에서 높낮이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다.³³⁾ 그런데 울릉도 고분군 중에서 현실과 구분되는 연도를 표현한 사례가 존재하여 주목된다. 잔존상태가 양호한 일부 유구에서는 출입구 인근의 천장석의 높이를 낮추거나 바닥 부분의 너비와 형태를 달리하여 현실과 연도를 구분하였다.³⁴⁾ 이러한 특징은 울릉도 고분의 석실 구조를 분석한 최근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는데,³⁵⁾ 확실한 사례는 현포리 1호분, 현포리 16호분, 남서리 15호분, 남양리 1호분 정도이다. 대표적으로 현포리 1호분의 경우 입구의 천장석

1998 앞의 책, 118~119쪽; 國立中央博物館, 앞의 책, 2008.

30) 이렇게 후미의 폭이 줄어드는 형태가 전체적으로 배의 평면과 비슷하다고 하여 연구자마다 舟形, 船形 또는 魚形으로 표현하고 있다.

31) 홍보식, 앞의 논문, 2019, 121쪽.

32) 金夏奈, 앞의 논문, 2006, 34~44쪽; 이성주, 앞 논문, 2010, 37~39쪽; 홍영호, 「6~7세기 고고자료로 본 동해안과 울릉도」, 『이사부와 동해』 1, 2010, 194쪽, 노혁진, 앞 논문, 2014, 25쪽 등

33) 홍보식, 「황구식석실·황혈식석실의 조사 방법과 기록」, 『한국 매장문화재 조사연구방법론』 5,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154쪽.

34) 일찍이 김원용은 천장석과 비슷한 돌 한 단 낮게 걸쳐 있거나 역삼각형의 돌이 수직으로 드리워져 있는 경우를 두고 입구와 현실을 구분하는 연도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지 추정한 바 있다.

35) 홍보식, 앞의 논문, 2019, 106~110쪽.

2개가 돌이 다른 천장석보다 낮으며, 이에 대응하는 바닥의 너비와 형태가 석실 내부와 다르다.³⁶⁾ 남서리 15호분 또한 입구 가장 바깥의 천장석이 석실 내부의 천장석보다 높이가 낮고, 그다음 천장석은 수직으로 세워졌다. 이에 대응되는 바닥면은 현실보다 높아 현실과 구분되는 연도 시설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황혈식석실묘가 일부 확인되는 가운데, 미도굴분에 해당하는 천부리 2호는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어 참조된다. 이 고분은 경사지에 돌로 축대를 쌓고 그 위에 석실을 축조한 것이 아니라, 원래의 지표를 40cm 정도 파서 석실 바닥으로 삼았다. 인근에 위치한 천부리 3호분 또한 같은 형식의 고분인데, 천장석을 올리고 막음돌로 입구를 폐쇄한 후 흙과 자갈을 덮은 황구식석실로 보인다. 한편, 천부리 죽암 3호분과 같은 수혈식석곽묘도 매우 예외적이지만 확인된다.

울릉도에서 출토·채집된 토기류는 6세기 중엽~나말여초(羅末麗初) 시기에 해당한다. 다만 유물포함층이나 주변 지표에서 확인되는 유물이 곧 고분군의 연대를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에 울릉도 각 고분군의 상한 연대를 정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천부리 고분군 등³⁷⁾ 주요 고분 내부에서 확인되는 토기류로 대상을 한정하면 토기 연대는 7세기 후반~나말여초 시기로 비정된다.³⁸⁾ 출토 맥락이 확인되는 울릉도 고분군 출토품이 통일신라~나말여초

36) 보고서 또한 입구에서부터 3m 정도의 부분은 일종의 연도로써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서술하였다(國立中央博物館, 앞의 책, 2008, 41쪽).

37) 國立中央博物館, 위의 책, 2008, 206쪽; 이성주, 앞의 논문, 2010, 62쪽.

38) 현재까지 유물이 출토된 울릉도 고분은 천부리 1, 2, 3호분, 남양리 파괴분, 현포리 9, 16호분, 남서리 11, 15호분이다. 출토 유물 중 편년에 참조되는 토기류는 인화문이 시문된 직립구연·외반구연합, 사이부일면편호, 주름무늬병 등이 있다. 인화문토기 편년 연구에서는 연구자마다 견해 차이가 확인된다(최병현, 「신라 후기양식토기의 편년」, 『嶺南考古學』 59, 2011; 홍보식, 「統一新羅土器의 上限과 下限」, 『嶺南考古學』 34, 2004; 李東憲, 「印花文 有蓋盥 硏究-慶州地域 出土有物을 中心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본고에서는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잠정적으로 천부리고분군

시기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신라가 울릉도에 진출한 6세기 전반부터 곧 울릉도 고분군이 꾸준히 조성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울릉도 고분에서 출토되는 인화문토기는 통일신라시기 왕경유적, 저명사찰이나 성곽 유적에서 출토된 고급 용기이다. 당시 신라 지방의 하위 취락에서는 완, 합, 호형토기 정도가 출토 토기의 전부라는 점³⁹⁾에서 울릉도 고분 축조집단이 신라 중앙과 관련되었으며 상당한 위계를 지녔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⁴⁰⁾ 특히 천부리 1호분과 2호분에서는 인화문 토기류 외에도 마구류와 장신구로 추정되는 청동방울, 금동제 구슬, 금동제 장식판이 출토되었고 천부리 3호분에서는 철촉, 철도자 등의 철기류도 확인되었다. 울릉도 출토 금속제품이 천부리에 집중되고 있으며 고급 인화문토기가 공반되는 것으로 볼 때 천부리 고분군의 피장자는 신라 중앙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현재 독도박물관 향토사료관 소장 유물인 동관편은 지표 수습품으로 명확한 수습 위치도 알 수 없으나 신라와의 관계성 측면에서 주목된다. 이는 신라관의 대륜부와 입식의 잔존물인 것으로 보인다.⁴¹⁾ 신라·가야

등 울릉도 고분군의 연대를 7세기 후반~나말여초로 폭넓게 비정하였으며 구체적인 고분군별 편년 작업은 추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39) 이성주, 앞의 논문, 2010, 63쪽.

40) 축대부 직경이 10m가 넘는 규모의 무덤을 석재를 재료로 축조하기 위해서 많은 노동력과 사회경제적 경비가 투입되었을 것이다. 가령 현포리 1호분의 경우, 석실 길이 6.5m에 축대부 직경 10m에 달하는 대규모 분묘이다. 위계와 관련하여, 고분군의 고분 수와 봉분의 규모 등에 따라 집단 구성원 사이의 계급 차이를 설명한 연구, 현포리를 정점으로 하는 위계가 존재했음을 서술한 연구, 울릉도의 구역을 나누고 구역 간 및 구역 내 유적 중심성과 위계성을 제시한 연구 등이 있다(崔夢龍 外, 『鬱陵島 地表調査 報告書 I』, 서울大學校 博物館, 1997; 신숙정·이성주, 「유적·유물을 통해 본 선사·고대의 울릉도 사회」, 『河炫綱教授定年紀念論叢: 韓國史의 構造와 展開』, 혜안, 2000, 80~81쪽; 오강원, 「고대 울릉도 사회와 집단에 관한 몇 가지 문제-울릉도 조사 고대 유물을 중심으로」, 『독도·울릉도 연구 - 역사·고고학·지리학적 고찰』, 동북아역사재단, 2010, 213쪽).

41) 신숙정·이성주, 위의 논문, 2000, 80~81쪽; 國立中央博物館, 앞의 책, 2008, 209쪽.

지역에서 확인되는 위세품으로서의 금속제 관은 금, 은 아니면 최소한 금동제인데, 울릉도의 경우 청동 재질로 제작되었고 퇴화된 장식성을 띠고 있다. 부분적으로 철사를 꼬아 영락을 달아놓은 형태와 투공으로 볼 때 안동 지동 2호 수혈식석과 출토 금동관, 단양 영춘면 하리 수습 동관, 그리고 동해 추암동고분 출토 동관이 비교자료로 언급된다.⁴²⁾ 이렇게 퇴화된 형태의 관은 육지에서의 공반 유물을 통해 볼 때 6세기 중반 이후로 편년된다. 이들은 대형분이 아닌 중소형분에서 출토된다는 점에서 6세기 전반까지 정치 권력의 상징물로서 최고 위계 대형분에서 출토된 기존 금동관과는 구별되는 성격을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다.⁴³⁾ 다만 울릉도의 경우 육지에서 떨어진 도서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하면 외래의 신제품인 동관을 착용한 자가 울릉도 사회를 이끌어가는 상위 엘리트임은 분명해 보인다.⁴⁴⁾ 울릉도 동관의 비교자료가 모두 신라 북부에 분포해있는 것으로 볼 때, 동관의 착용자는 신라 북부 지역과 관련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증거로 미루어 볼 때, 울릉도 고분의 축조 집단과 고분의 계통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선행연구를 참조하면, 경북 북부-동해안 지역의 고분 문화가 울릉도 고분 구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혹은 왕경 거주민이 울릉도에 이주·정착했을 가능성이 상정된다. 전자의 경우, 5세기 후반-6세기 초반 무단식 횡구부, 세장방형 평면, 수직 장벽을 지닌 안동 조탑동 고분, 의성 탑리 고분 등의 횡구식석실과 연결시키면서 경북 북부 지역의 집단을 우산국으로 사민하였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⁴⁵⁾ 독도박물관 소장 동관편 또한 신라 북부지역과의 연결성을 시사하는 유물에 해당한다. 후자의 경우, 울릉도 고분군에서 출토·수습되는 통일신라~나말여초 시기의 토기가 주로 왕경에서 소비되는 고급 용기이며 지방에서 출토되는

42) 金夏奈, 앞의 논문, 2006, 43쪽; 國立中央博物館, 위의 책, 2008, 209~210쪽.

43) 이성주, 앞의 논문, 2010, 42쪽.

44) 오강원, 앞의 논문, 2010, 212쪽.

45) 金夏奈, 앞의 논문, 2006, 78쪽.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언급된다.⁴⁶⁾ 한편 8-9세기대 신라의 울릉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1917년 발견되어 8~9세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제 석가여래입상⁴⁷⁾을 참조할 수 있다.⁴⁸⁾ 옛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불상은 신라 중앙인의 적극적인 진출로 인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대 울릉도의 고고학적 증거는 위와 같이 주로 고분 자료에 집중되고 있고, 선사시대 이래 주거지 등의 생활유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현포리의 열석(列石) 유적은 울릉도에서 해상교통의 안전이나 주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유적 혹은 거석기념물로 추정되고 있으며, 중심 사용 시기는 7세기 이후로 판단된다.⁴⁹⁾

2. 환동해 교류 관련 울릉도의 고문헌 자료

고대 울릉도와 관련된 사료는 매우 영세하며, 그마저도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과 관련된 내용에 한정되어 있다. 512년 신라 何瑟羅州의 軍主인 이사부가 울릉도의 우산국을 정복하고 신속(臣屬)하게 한 사건은 《三國史記》 신라본기와 이사부 열전에 거의 같은 내용으로 실려 있으며, 《三國遺事》 기이편에도 나타나고 있다.

[사료 1] 13년 여름 6월에 于山國이 귀복(歸服)하고, 해마다 토산물을 공물로 바쳤다. 우산국은 溟洲의 정동쪽 바다 섬에 있는데, 혹은 鬱陵島라고도

46) 홍보식, 앞의 논문, 2019, 123쪽.

47)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5: 統一新羅時代2》, 1917, 圖版 618·2027(오강원, 앞의 논문, 2010, 196쪽에서 재인용).

48) 김원용은 금강산 유적사의 금동불을 제작한 공인과 비슷한 유파에 의해 제작되었다고 보며, 8~9세기 무렵의 것으로 보았다(김원용, 앞의 책, 1963, 38~39쪽).

49) 이청규, 앞의 책, 2016, 317~318쪽.

이른다. 땅은 사방 100리인데, 지세가 험한 것을 믿고 복종하지 않았다. 伊滄 異斯夫가 何瑟羅 軍주가 되어 이르기를, ‘우산인은 우둔하고 사나워서, 위엄으로 오게 하기는 어렵지만, 계책을 내어 복속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나무로 사자 인형을 많이 만들어 전선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 해안에 이르러 거짓으로 알리기를 ‘너희들이 만약 항복하지 않는다면, 이 맹수를 풀어 밭아 죽이겠다.’고 했다. 나라 사람들이 몹시 두려워하면서 곧 항복하였다.⁵⁰⁾

[사료 2] 또, 阿瑟羅州【지금의 溟州】 동쪽 바다 가운데에 순풍으로 이틀 걸리는 거리에 芍陵島【 지금은 羽陵이라고 함】가 있었다. 둘레가 2만 6천 7백 보였는데, 섬의 오랑캐들은 그 바닷물이 깊은 것을 믿고 교만하여 신하노릇 하지 않았다. 왕이 伊滄 朴伊宗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그들을 토벌하게 하였다. 그가 나무 사자를 만들어 큰 배 위에 싣고 그들을 위협하며 말하기를,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를 풀어놓겠다.’고 하자, 섬 오랑캐들이 두려워하며 항복하였다. 伊宗에게 상을 내려 州伯으로 삼았다.⁵¹⁾

이사부가 계책을 내어 ‘木偶獅子’를 활용하는 계책을 내어 울릉도에 있었던 현지 집단인 우산국을 복속시키고, 울릉도에 무혈입성하여 신라에 공납을 바치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신라의 영동지역으로의 영토 확장의 일환으로 다루어졌고, 인물사적 측면에서 이사부의 생애와 군사 활동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이 갖는 의미는 신라의 동해 제해권(制海權) 확보⁵²⁾ 또는 해상권(海上權) 장악⁵³⁾의 측면에서

50)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智證麻立干 13年 “夏六月, 于山國歸服, 歲以土宜爲貢. 于山國在溟州正東海島, 或名鬱陵島. 地方一百里, 恃嶮不服. 伊滄異斯夫爲何瑟羅州軍主謂, “于山人愚悍, 難以威來, 可以計服.” 乃多造木偶師子, 分載戰船, 柢其國海岸, 誑告曰, “汝若不服, 則放此猛獸踏殺之.” 國人恐懼則降.”

51) 『三國遺事』卷1 紀異1 智哲老王 “又阿瑟羅州【今溟州】 東海中便風二日程有芍陵島【今作羽陵.】. 周迴二萬六千七百三十步, 島夷恃其水深橋傲不臣. 王命伊滄朴伊宗將兵討之. 宗作木偶師子載於大艦之上, 威之云 ‘不降則放此獸’. 島夷畏而降. 賞伊宗爲州伯.”

논의되어왔다. 이때 울릉도의 전략적 의의를 ‘동해의 중·북부 해역을 무대로 한 연해주-한반도 동해안-일본열도를 포괄하는 관계망의 중간 결절점’으로 파악하고, 신라가 우산국 정복을 계기로 이 관계망에 개입하게 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⁵⁴⁾ 최근에는 우산국 정벌의 주목적이 해산물을 비롯한 토산물, 특히 水牛(海豹, 물개)의 수취였다고 구체화한 견해⁵⁵⁾도 제기된바 있다.

울릉도가 이렇게 환동해의 교류망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우산국 정벌이 비교적 자세하게 전승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 이후 고대 울릉도와 관련지을 수 있는 기록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헌 사료만으로 이사부의 정벌 이후 신라의 울릉도 지배 방식이나, 울릉도 현지 사회의 향방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직접 울릉도 또는 우산국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정황상 울릉도로 볼 수도 있는 ‘한반도의 동쪽 섬’에 대한 기록이 있어, 그 해석에 대해 연구자마다 견해가 나뉘고 있다.

[사료 3] 王頎가 별도로 군대를 파견하여 崐을 뒤쫓아 치게 하여 그 동쪽 경계 끝까지 다다랐다. 그 촌老에게 묻기를, ‘바다 동쪽에 다시 사람이 살고 있는가?’라고 하였다. 기로들이 ‘나라 사람들이 일찍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다가 풍랑을 만나 수십 일 동안 바람이 부는 대로 표류하다가 동쪽의 한 섬에 닿았다. 섬 위에 사람이 있었으나 말을 서로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 풍속에 항상 7월에 어린 여자아이를 구하여 바다에 빠트린다.’고 하였다.⁵⁶⁾

52) 金皓東, 「삼국시대 新羅의 東海岸 制海權 확보의 의미」, 『大丘史學』 65, 2001.

53) 강봉룡, 「이사부 생애와 활동의 역사적 의의」, 『이사부와 동해』 1, 2010.

54) 金昌錫, 「新羅의 于山國 복속과 異斯夫」, 『歷史教育』 111, 2009, 128쪽.

55) 정운용, 「三國時代 新羅 異斯夫의 軍事 活動」, 『先史와 古代』 50, 2016, 126쪽.

56) 『三國志』 卷30, 魏書 30 東夷傳 東沃沮 “王頎別遣追討宮, 盡其東界. 問其耆老「海東復有人不」? 耆老言國人嘗乘船捕魚, 遭風見吹數十日, 東得一島, 上有人, 言語不相曉, 其俗常以七月取童女沈海.”

먼저 『三國志』魏書 東夷傳 東沃沮條의 일부이다. 245년 冊丘儉이 이끄는 위나라 군대가 옥저에 이르러 동해 건너편의 상황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한 결과를 보여주는 사료로, 이때의 ‘바다 동쪽의 섬’의 실체는 울릉도로 추정하는 시각이 많으며, 우연한 표류에 의한 접촉이었지만, 이후 울릉도-옥저 사이에 풍속을 파악할 정도의 교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한 견해도 있다.⁵⁷⁾ 이에 대한 반론으로, 신라가 우산국을 정벌하는 6세기 이전에도 옥저와 울릉도 사이의 바다를 통한 접촉이 이루어졌을 것이며, 서로 말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문화적 이질성이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제기된 바 있다.⁵⁸⁾

[사료 4] 신라는 弁韓의 후예로 漢의 낙랑 땅에 있다. 횡으로 1천리, 종으로 3천리이다. 동쪽으로 長人の 나라가 있고, 동남쪽으로 일본, 서쪽으로 백제, 남쪽은 바다와 접하며 북쪽으로 고려가 있다. …… 長人是 사람의 종류이지만 키가 3丈이나 되고, 이빨이 톱날과 같고 손톱은 갈고리 같다. 검은 털이 온몸을 덮고, 음식을 익혀 먹지 않아 짐승을 날로 먹고 혹 사람을 잡아먹기도 한다. 결혼을 하면 여자는 옷 짓는 일을 한다. 그 나라는 산이 수십 리나 잇달아 있고, 협곡은 철문으로 굳게 수비하며 關門이라 부른다. 신라는 항상 쇠뇌기를 다루는 병사 수천 명을 주둔시켜 지킨다.⁵⁹⁾

다음은 『新唐書』新羅傳에 기록된 소위 ‘長人國’ 설화이다. 김부식이 이를 ‘전해지는 소문이지 실제의 기록이 아닌 것으로(傳聞懸說 非實錄也)’ 평가한

57) 김창석, 앞의 논문, 2009, 127쪽.

58) 김선숙, 「3세기대 옥저의 역사지리적 위치와 대외활동」, 『한국전통문화연구』 23, 2019, 93~96쪽.

59) 『新唐書』卷220, 列傳145 東夷 新羅傳 “新羅弁韓苗裔也。居漢樂浪地, 橫千里, 縱三千里, 東拒長人, 東南日本, 西百濟, 南瀕海, 北高麗。 …… 長人者, 人類長三丈, 鋸牙鉤爪, 黑毛覆身, 不火食, 噬禽獸, 或搏人以食, 得婦人, 以治衣服。其國連山數十里, 有峽, 固以鐵關, 號關門, 新羅常屯弩士數千守之。”

것⁶⁰)과 달리, 어느 정도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담지한 것으로 보고 ‘長人’의 실체를 추적하려는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장인국’을 발해로 보고 발해에 대한 신라의 적대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한 견해⁶¹), 이를 반박하고 ‘장인’의 실체를 일본 혹은 당 및 신라 주위 해상에서 활동한 해적⁶²) 또는 신라 동북경에 거주하던 이종족인 靺鞨, 狄賊 등과 연결 지은 견해⁶³), 일본 本州 북부에 거주하던 蝦夷로 본 견해⁶⁴)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기사에 신라를 중심으로 한 방위 관념이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동쪽의 세력은 울릉도의 주민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⁶⁵) 이 견해는 발해가 대일(對日) 교통로 상에서 울릉도를 경유하게 되면서 서로 교섭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신라가 울릉도에 대한 적대적 관념을 보이게 된 것이 설화에 반영되었다고 해석하였다.

[사료 5] 11월 17일 병오, 이에 앞서 丹後國이 “細羅國人 54명이 竹野郡 松原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이 온 이유를 물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고 文書도 풀이하지 못했습니다. 그 우두머리인 屎烏舍가 한서로 답하길 ‘신라 동쪽 섬나라 세라국 사람이다.’라고 써서 답하고 그 밖의 어떤 말도 없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因幡國에서는 “新羅國 사람 57명이 荒坂의 해안가에 도착하였는데, 아마도 商人 같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이날 칩을 내려 程糧을 주어 그들 나라로 돌아가게 했다.⁶⁶)

-
- 60) 『三國史記』卷34, 雜誌3 新羅 “新書又云, “東距長人, 長人者, 人長三丈, 鋸牙鉤爪, 搏人以食. 新羅常屯弩士數千, 守之.” 此皆傳聞懸說, 非實錄也.”
- 61) 李成市,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 1998, 岩波書店.
- 62) 李美子, 『《新唐書》新羅傳·《太平廣記》新羅條의 “長人國”기사에 관한 고찰』, 『白山學報』 65, 2003.
- 63) 송기호, 「남북국의 전쟁, 경쟁과 교류」, 『新羅史學報』 45, 2019, 22~26쪽.
- 64) 方善柱, 「新唐書 新羅傳所載 長人記事에 對하여」, 『史叢』 8, 1963.
- 65) 김창석, 앞의 논문, 2009, 129~130쪽.
- 66) 『日本三代實錄』卷7, 清和天皇 貞觀 5年 “十一月十七日丙午, 先是丹後國言, ‘細羅國人 五十四人來着竹野郡松原村. 問其來由, 言語不通, 文書無解, 其長頭屎烏舍, 漢書答云,

마지막으로 9세기 중·후반 일본의 정사(正史)인 『日本三代實錄』에는 ‘新羅東方別嶋 細羅國人’ 54인이 丹後國의 竹野郡 松原村에 도착하여, 식량을 주어 되돌려 보냈다는 내용의 기사가 확인된다. 이때 세라국인은 ‘말과 글이 통하지 않았다(言語不通 文書無解)’고 특기되어 있다. 이재석은 최근의 연구에서 ‘세라국=울릉도’ 설을 검토하였는데, ‘신라의 동방 별도’라는 위치성을 중시하는 한 세라국을 울릉도로 보아도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세라국과 우산국 표기에 연관성을 발견하기 어려움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新羅東方別嶋’와 ‘細羅國’을 별개의 것으로 해석하고, 세라는 溟州(현 강릉)의 옛 이름인 ‘(何)瑟羅’와 연관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⁶⁷⁾

그렇다면 위의 사료에서 묘사하고 있는 섬들이 정말 울릉도일까? 이 섬들을 울릉도로 판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동쪽 바다의 섬’이라는 방위와 관련된 내용뿐이라는 점에서 그 여부를 단언하기 어렵다. 그런데 앞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 울릉도를 묘사할 때에 예외 없이 동해 정동 쪽의 섬 등으로 방위를 중시하여 표현했고, 실제 한반도 동쪽 바다의 섬은 울릉도와 독도뿐이라는 점에서, 울릉도가 아닐 경우 다른 대안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문제에 봉착한다.

우선 이 섬들이 울릉도라고 가정하면 사서를 통해 울릉도에 일정 수준의 문화와 사회조직이 유지된 정치체가 존재했음이 입증되는 셈이고, 이는 앞서 살펴본 고고학 자료와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삼국사기』에서 울릉도 세력이 于山‘國’으로 표현한 점, 신라에 귀부한 후 매년 토산물을 바치기로 했다는 점은 신라에 복속되기 이전 울릉도에는 조직화된 사회가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삼국지』 동옥저조(사료 3)에서 말하는 “동쪽의 한 섬”을 다수의 연구에서 울릉도로 보고 있다. 이 중 “늘 7월이면 童女를

新羅東方別嶋 細羅國人也。自外更無詞。’因幡國言，‘新羅國人五十七人，來着荒坂濱頭，略似商人。’是日勅給程糧，放却本蕃。”

67) 이재석, 「9세기 일본 사료 속의 울릉도·細羅國」, 『韓日關係史研究』 69, 2020.

구하여 바다에 넣는다”는 대목에서 주기적인 인신공희 형태의 의식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3세기경 울릉도에 일정 수준의 문화를 지녔던 선주민 집단을 상정하기도 한다.⁶⁸⁾ 이는 앞서 제기한 1998년도 서울대박물관 조사를 통해 확인도 소위 ‘홍도’와 고인들에 대한 이후의 비판적 평가에 대해 재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1998년 보고서에서 제시된 자료가 설령 ‘청동기시대’의 것으로는 볼 수 없을지라도, 사료를 통해 엿볼 수 있는 신라에 복속되기 전 우산국의 문화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석과 석봉도, 그리고 석제 어망추의 경우에도, 한반도 본토 출토품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사용 시기에 대한 정밀한 평가 및 사용맥락의 탐색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섬들 전부 혹은 일부가 울릉도가 맞다고 가정한다면, 신라로 복속된 6세기 이후의 기록인 『신당서』나 『일본삼대실록』에서도 이곳의 주민들을 여전히 말과 글이 통하지 않고 야만적인 풍습을 지닌, 신라 본토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문점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6세기 이후에도 문화적 이질성이 강하게 유지된 것이라면, 앞서 언급한 울릉도에 분포하고 있는 통일신라 양식의 토기 등을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IV. 환동해 교류망의 재생산과 울릉도의 역할

신라의 울릉도 복속과 지배는 동해의 제해권·해상권 장악 혹은 환동해 관계망으로의 진입 등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사건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이해는 동해를 항해하는 항로에서 울릉도·독도의 역할이 중요했다

68) 한준수, 「울릉도의 고분을 통해서 본 신라 중대의 지방통치」, 『한국학논총』 41, 2014, 135~136쪽.

는 인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고구려·발해와 일본 간의 교류가 이루어진 동해 횡단 항로에서 울릉도를 경유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환동해 교류망의 재생산과 관련된 울릉도의 역할에 대해 검토해보고, 그 중요성을 되새겨보고자 한다.

우선 신라가 위협을 무릅쓰고 동해 한가운데에 위치한 섬인 우산국의 정벌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삼국사기』(사료 1)에는 우산국 사람들이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만 있을 뿐 정벌의 실질적인 이유는 기록되지 않았다. 신라가 우산국을 정벌한 배경과 그 과정은 당시의 역사적 맥락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했듯이 6세기 초 신라의 동해안 진출, 고구려 견제 등 여러 요인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5세기 중반~6세기 초 신라가 고구려 세력권으로부터 이탈을 추구하면서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상쟁을 벌였음이 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⁶⁹⁾ 지증왕 6년(505)과 13년(512)에는 삼척과 강릉 지역에 각각 悉直州와 何瑟羅州를 설치하였고, 이사부를 군주로 파견하여 북방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동시에 동해 연안 수운 교통망을 장악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이사부가 실직주의 군주로 부임한 해(505) 11월에 “선박 이용을 통제했다”는 구절에서 확인된다.⁷⁰⁾ 이후 512년 이사부가 하슬라주 군주로 부임한 바로 그해에 우산국을 정복하였다.

우산국 정복 이유와 관련하여, 해양세력인 우산국의 침입에 대응하여 그들을 정벌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즉 우산국과 같이 대륙으로부터 격리된 해양세력은 침략을 통한 문화약탈이나 정보

69) 대표적으로 450년 悉直에서 사냥하던 고구려의 邊將을 죽인 사건(『三國史記』卷3, 新羅本紀3 訥祗麻立干 34年), 468년 장수왕이 군사를 동원하여 삼척 悉直州城을 공격하여 빼앗은 사건(『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6 長壽王 56年), 役夫를 징발하여 波里(삼척), 彌實(홍해) 일대에 성을 축조한 사건(『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智證麻立干 5年) 등이 있다.

70)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智證麻立干 6年 “冬十一月, 始命所司藏氷. 又制舟楫之利.”

입수를 추구했으며 신라는 이를 압박으로 느꼈다는 것이다.⁷¹⁾ 또한, 우산국 정벌 기사(사료 1)에서 우산국 사람들을 “바닷물이 깊은 것을 믿고 교만”했다고 표현한 대목이나 이사부가 “우둔하고 사나워서, 위엄으로 오게 하기는 어렵다”고 서술한 부분을 근거로, 우산국 사람들이 그 지역 물길에 익숙하여 해상권을 장악하고 세력화했다고 보거나⁷²⁾ 신라가 쉽게 정벌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산국의 군사력과 문화가 높은 수준이었다고 추정한 견해⁷³⁾도 있다. 하지만 울릉도 선주민 세력이 어떤 양상으로 존재했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라가 압박을 느낄 정도의 상황이 마련될 수 있었을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해 제해권 장악과 관련지으며 울릉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강조하는 연구도 그동안 많았다. 그중 김창석은 신라가 고구려와 왜 사이의 교통로 상에 위치하여 중간 경유지 역할을 하는 우산국을 장악하여 양국 관계 단절을 추구했다고 보았다.⁷⁴⁾ 실제로 5세기 후반~6세기 초 고구려와 왜가 사신을 보내 우호를 맺는 사례가 확인된다.⁷⁵⁾ 다만 이 시기 고구려는 일본으로 가기 위해 서해안과 동해안의 항로 모두를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⁷⁶⁾ 『日本書紀』에는 490년에 吳國(南齊)의 사신과 고구려의 사신이 함께 일본에 왔다는 기사와, 516년 고구려의 사신이 백제 사신과 함께 일본에 왔다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⁷⁷⁾ 이에 당시의 울릉도가 고구려-왜 간의 교섭·교류 항로로

71) 한준수, 앞의 논문, 2014, 140쪽.

72) 윤명철, 「한국의 고대문화와 해양 남방문화」, 『국사관논총』 106, 2005, 4~5쪽.

73) 윤재운, 『한국고대무역사 연구』, 경인문화사, 2006, 69쪽.

74) 김창석, 앞의 논문, 2009, 12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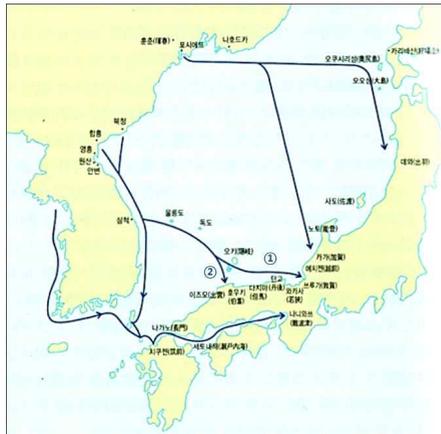
75) 『日本書紀』卷15, 仁賢天皇 6年 “秋九月己酉朔壬子, 遣日鷹古土, 使高麗, 召巧手者.”;
『日本書紀』卷17, 繼體天皇10年 “戊寅 百濟遣 灼莫古將軍·日本斯那奴阿比多, 副高麗使安定等, 來朝結好.”

76) 정진술, 『한국의 고대 해상교통로』,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9, 409쪽.

77) 『日本書紀』卷11, 仁德天皇 58年 “吳國·高麗國 竝朝貢”; 『日本書紀』卷17, 繼體天皇 10年 “戊寅 百濟遣 灼莫古將軍·日本斯那奴阿比多, 副高麗使安定等, 來朝結好.”

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부가 울릉도를 정복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발해 사신들의 도일(渡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환동해 네트워크 속에서 울릉도는 ‘작은 세계(small world)’를 만드는 천혜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역사 기록을 근거로 고구려·발해와 일본 간의 항로 중 동해 중부 이북-일본 혼슈 중부의 항로를 검토한 정진술은 두 가지 노선을 제시한 바 있다.⁷⁸⁾ 첫 번째(<그림 4>의 ①)는 영흥만이나 함흥 인근의 포구 등에서 출발하여 동해안을 따라 삼척까지 내려왔다가 울릉도와 독도 및 오키 섬(隱岐島)을 거쳐 일본 혼슈 서안의 호쿠리쿠(北陸) 지역 해안에 이르는 노선이다. 이는 6~7세기



<그림 4> 발해 사신들의 도일(渡日) 항로 (정진술, 앞의 책, 2009, 416쪽 수정 후 인용)

의 고구려 사신들과 발해 전기의 사신이 활발하게 이용한 항로로, 발해 사신선의 출발지는 연해주 포시에트만과 함경도 북청 부근으로 좁혀진다. 두 번째 항로(<그림 4>의 ②)는 함경도 북청 부근의 포구를 출발하여 강원도 연안을 따라 항해하다 울릉도와 독도를 지나 혼슈 북안 서쪽의 오키섬과 산인(山陰) 지역에 이르는 노선이다. 음력 11월에서 1월 사이의 서북풍을 이용한 항해로, 중간에 있는 섬들을 징검다리처럼 확인하며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시인거리(視認距離) 연안 항해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

78) 정진술, 앞의 책, 2009, 408~416쪽.

다.79)

두 가지 노선은 모두 동해안 북부에서의 연안 항해와 원양 항해가 절충된 항로이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두 경우 모두 울릉도와 독도가 조타목표(操舵目標) 또는 중간 기항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울릉도와 독도가 발해에서 일본으로 건너갈 때의 중간 기항지로 활용되었다는 점은 발해1300호의 항해를 통해 실증적으로 증명되기도 했는데,⁸⁰⁾ 발해 연안-울릉도-오기-에치젠(越前)의 항로를 발해인들이 가장 선호한 것으로 보았다.⁸¹⁾ 이렇게 울릉도가 한반도 중·북부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로의 기항지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라의 울릉도 지배 역시 교통로 상의 이점을 장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⁸²⁾

발해와 일본 간의 항로에서 울릉도가 중간 경유지로 활용되었다면, 이 과정에서 발해-신라-일본의 접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울릉도의 천부리 1·2호분에서 9~10세기로 편년되는 통일신라의 인화문 토기나 편병(扁瓶), 주름무늬병 등이 다수 출토되는 점을 볼 때,⁸³⁾ 이 시기 울릉도에서도 통일신라 본토의 문화가 유입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천부리 1호분에서 출토된 사이편병(四耳扁瓶)과 유사한 것이 발해의 염주성(鹽州城)으로 비정되는 크라스키노 성터의 우물에서도 출토되었다. 크라스키노 성터는 발해에서 일본으로 가는 日本道の 경유지로서 新羅道와는 연결되지 않는데도 신라계 유물이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발해와 일본 사이의

79) 이외에도 고구려·발해와 일본 간의 항로에 대해서는 북해·연해주 항로, 동해안 북부 횡단항로 등이 제시되었으나 여기에서는 울릉도를 경유할 가능성이 있는 항로에 한정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80) 윤재운, 「한국 고대 해상 교통로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해양문화재』 14, 2021, 26쪽.

81) 김윤배·권용인·이소희, 「발해건국 1300주년 기념 발해해상항로 학술SYMPOSIUM을 통한 발해의 동해해상항로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16, 2007, 103~104쪽.

82) 김창석, 「8세기 渤海의 對日 항로와 蝦夷」, 『아시아문화』 26, 2010, 11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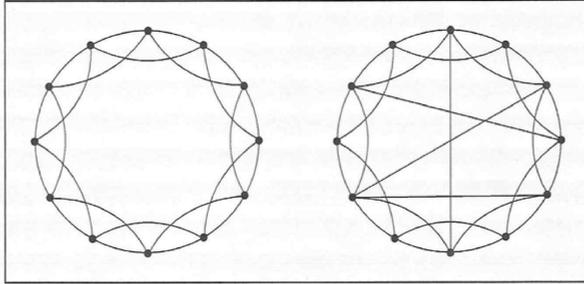
83) 國立中央博物館, 앞의 책, 2008, 206~207쪽.

왕래 과정에서 신라와 상호 접촉했을 가능성을 뚜렷이 보여준다.⁸⁴⁾

이처럼 통일신라의 문화 요소가 멀리 발해의 염주성에 도달하게 된 경우나 그 과정에서 울릉도의 역할을 살펴봄에 있어서, 서양 고고학의 해상 네트워크 연구에서 종종 사용되는 ‘작은 세계’ 이론을 참고할 만하다. ‘작은 세계’ 이론에서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노드들 사이에 하나의 링크만 - 그것이 설령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링크일지라도 - 추가되더라도, 전체 네트워크의 연결성이 놀라울 정도로 증가하여 그 네트워크가 이루는 세계가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한다(<그림 5> 참고),⁸⁵⁾ 『삼국지』 [사료 3]의 기사가 계절만 맞으면 해류와 바람의 도움을 받아 한반도 동북 지역이나 연해주 지역과 울릉도로의 항해가 가능했고, 또한 돌아오는 것도 가능했음을 시사하는 만큼, 두 지역(노드)를 연결하는 링크가 이미 존재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링크와 앞서 2장에서 소개한 링크들이 존재하는 환동해 서쪽 구역의 네트워크 속에서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은 또 하나의 링크가 생성되는 사건인 동시에, 그와 같은 링크의 생성을 통해 환동해 서쪽 구역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세계를 더 ‘작은 세계’로 만든 사건이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84) 송기호, 『발해 사학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34쪽.

85) Malkin, I., *A Small Greek World: Networks in the Ancient Mediterrane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그림 5> 네트워크 내에서 어떻게 링크의 추가로 “작은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식도. 각각의 노드가 가장 가까운 4개의 이웃 노드와 연결된 네트워크(왼쪽)에 몇 개의 링크가 추가될 경우(오른쪽)에 노드 간 연결성이 얼마나 심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Malkin, 앞의 책, 2011, 28쪽 그림 1.7. 인용)

V. 맺음말

본고에서는 울릉도의 역사지리적 위치를 당시에 작동했던 환동해 서쪽 구간 네트워크의 맥락 속에서 접근하고자 했다. 즉, 신석기시대부터 이어져 온 환동해 해상 교류의 현상들 속에서 울릉도에서 발견된 고고학 자료의 의미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하였으며, 이사부의 우산국 정복의 의미를 그 당시의 의도나 목적에 국한하지 않고, 그것의 - 예기치 않았던 것일 수도 있는 - 결과인 네트워크 연결성의 증대에서 찾아보았다. 필자들이 이처럼 환동해 지역을 ‘작은 세계’로 만드는데 일조한 울릉도의 역할에 주목한 것은, 울릉도의 이와 같은 역사지리적 위치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만 후대의 기록에서 보이는, 울릉도를 둘러싼 여러 사건들의 의미를 재조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高麗史』에서는 여진족이 우산국을 침략하고 노략질을 하여 우산국이 황폐해져 농사가 어렵게 되자 고려 조정은 관리 이원구를 파견하고 농기구 및 식량과 종자를 보냈다(현종 9년)는 기록이 확인된다. 대몽항쟁과 그 이후, 고려 조정은 주민들을 울릉도로 보냈으나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과 왜인들의 잦은 침입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이주를 중단시켰고(고종 30년), 왜인들의 침입이 그치지 않자 권형윤과 사정순을 울릉도 안무사각주에 임명하여 섬을 관리하게 하였으며(고종 33년) 왜(倭)가 무릉도에 들어와 보름동안 머물다가 돌아갔다는 기록(우왕 5년)⁸⁶⁾도 있다. 이와 함께 조선 초기에 공도정책을 추진하게 된 경위도 울릉도의 역사지리적 맥락 속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내에서도 문화유산의 가치와 담론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⁸⁷⁾ 이처럼 울릉도에 대한 ‘깊은 역사’적 조망을 시도하고, 또한 ‘광범위한 환동해 교류망’의 맥락 속에서 그 역사를 살펴보는 이유에는 울릉도 문화유산의 가치가 학계와 정부 기관에서 부여하는 가치에 한정되지 않고, 대중이 공감하는 확장된 국내적 및 국제적 가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이 논문의 제 II장은 2021년 8월 27일 개최된 “동해를 둘러싼 교류와 갈등: 선사에서 중세까지” 학술회의 발표원고 「‘환동해 오이쿠메네’ 재검토: 한반도 권역을 중심으로」(고일홍 발표)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며, 제 III-IV장은 동일한 학술회의의 발표원고 「문헌과 고고자료로 본 고대 울릉도」(최영은·한지선 발표)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86) 동북아역사재단 제공 “고려시대 울릉도와 독도 바로알기” 페이지.

http://contents.nahf.or.kr/eddokViewer/contens.do;jsessionid=645C866B34E8F75C3A02B8E88993CED5?viewType=High&levelId=eddok.d_0004_0040_0020 (2021.11.29. 접속)

87) 예를 들어, 박준영, 「구슬을 통해 본 함평 예덕리 신덕 고분의 가치」, 『함평 예덕리 고분군의 문화유산 가치와 보존 정책방향』, 국립광주박물관 대한문화재연구원, 2021.

참고문헌

1. 사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三國志』
『新唐書』
『日本三代實錄』
『海東地圖』

2. 단행본과 논문

- 강봉룡, 「이사부 생애와 활동의 역사적 의의」, 『이사부와 동해』 1, 2010.
- 강봉룡, 「섬의 인문학 담론—섬과 바다의 일체성과 양면성의 문제—」, 『도서문화』 44, 2014.
-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文化遺蹟分布地圖 - 鬱陵郡-』, 鬱陵郡·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2.
- 國立中央博物館, 『鬱陵島』, 2008.
- 고일홍, 「한국 청동기시대 이주 연구 -문제점 검토와 새로운 대안 모색-」, 『韓國靑銅器學報』 25, 2019.
- 김선숙, 「3세기대 옥저의 역사지리적 위치와 대외활동」, 『한국전통문화연구』 23, 2019.
- 김원용, 『鬱陵島: 國立博物館古蹟調查報告 第4冊』, 國立中央博物館, 1963.
- 김윤배 · 권용인 · 이소희, 「발해건국 1300주년 기념 발해해상항로 학술뗏목탐사를 통한 발해의 동해해상항로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16, 2007.
- 김은영, 「고성 문암리유적을 통해 본 신석기시대 평저토기문화의 전개」, 『문화재』 40, 2007.
- 김창석, 「8세기 渤海의 對日 항로와 蝦夷」, 『아시아문화』 26, 2010.

- 金夏奈, 「鬱陵島 横口式石室墓의 源流에 대한 研究」, 東亞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 논문, 2006.
- 金昌錫, 「新羅의 于山國 복속과 異斯夫」, 『歷史教育』 111, 2009.
- 金皓東, 「삼국시대 新羅의 東海岸 制海權 확보의 의미」, 『大丘史學』 65, 2001.
- 노혁진, 「울릉도의 고대 유적유물과 고고학적으로 본 우산국」 『이사부와동해』 8, 2014.
- 노혁진 · 오강원 · 김종규, 『울릉도의 고대 유적과 유물』, 동북아역사재단, 2009.
- 박준영, 「구슬을 통해 본 함평 예덕리 신덕 고분의 가치」, 『함평 예덕리 고분군의 문화유산 가치와 보존 정책방향』, 국립광주박물관 대한문화재연구원, 2021.
- 方善柱, 「新唐書 新羅傳所載 長人記事에 對하여」, 『史叢』 8, 1963.
- 裴眞晟, 「東北型石刀에 대한 小考 - 東海文化圈의 設定을 檢하여 -」, 『嶺南考古學報』 40, 2007.
- 裴眞晟, 「靑銅器時代의 蔚山와 豆滿江流域」, 『청동기 시대 울산 태화강문화』, 울산문화재연구원, 2010.
- 송기호, 「남북국의 전쟁, 경쟁과 교류」, 『新羅史學報』 45, 2019.
- 송기호, 『발해 사학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 송기호, 『한국 온돌의 역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 신숙정 · 이성주, 「유적 · 유물을 통해 본 선사 · 고대의 울릉도 사회」, 『河炫綱教授定年紀念論叢: 韓國史의 構造와 展開』, 혜안, 2000.
- 오강원, 「고대 울릉도 사회와 집단에 관한 몇 가지 문제-울릉도 조사 고대 유물을 중심으로」, 『독도 · 울릉도 연구 - 역사 · 고고학 · 지리학적 고찰』, 동북아역사재단, 2010.
- 윤명철, 「한국의 고대문화와 해양 남방문화」, 『국사관논총』 106, 2005.
- 윤재운, 『한국고대무역사 연구』, 경인문화사, 2006.
- 윤재운, 「한국 고대 해상 교통로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해양문화재』 14, 2021.
- 이도현, 「형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통해 본 문화변동양상」, 『韓國靑銅器學報』 17, 2015.
- 李東憲, 「印花文 有蓋盃 研究-慶州地域 出土有物을 中心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李美子, 「《新唐書》新羅傳·《太平廣記》新羅條의 “長人國”기사에 관한 고찰」, 『白山學報』 65, 2003.
- 李成市,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 1998, 岩波書店.
- 이성주, 「울릉도의 고분문화와 신라토기-고대국가 신라의 한 지방으로서 울릉도 지역문화의 특수성」, 『한반도 고대문화 속의 울릉도 - 토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10.
- 이성주 외, 『한반도 고대문화 속의 울릉도 - 토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10.
- 이재석, 「9세기 일본 사료 속의 울릉도·細羅國」, 『韓日關係史研究』 69, 2020.
- 이정규, 『해상활동의 고고학적 기원과 전개』, 경인문화사, 2016.
- 장용준·김종찬, 「한반도 출토 선사시대 흑요석 원산지 연구」, 『韓國考古學報』 111, 2019.
- 정운용, 「三國時代 新羅 異斯夫의 軍事 活動」, 『先史와 古代』 50, 2016.
- 정진술, 『한국의 고대 해상교통로』,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9.
- 崔夢龍 外, 『鬱陵島 地表調査 報告書 I』, 서울대학교 博物館, 1997.
- 최몽룡 외, 『鬱陵島: 考古學的 調査研究』, 서울대학교 博物館, 1998.
- 최병현, 「신라 후기양식토기의 편년」, 『嶺南考古學』 59, 2011.
- 하인수, 「즐문토기사회에 이식에 관한 시론」, 『중앙고고연구』 28, 2019.
- 허정백, 「고지도를 통해 본 조선후기 울릉도 지리인식」, 『지역과 역사』 17, 2005.
- 한준수, 「울릉도의 고분을 통해서 본 신라 중대의 지방통치」, 『한국학논총』 41, 2014.
- 홍보식, 「統一新羅土器의 上限과 下限」, 『嶺南考古學』 34, 2004.
- 홍보식, 「황구식석실·횡혈식석실의 조사 방법과 기록」, 『한국 매장문화재 조사 연구방법론』 5,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 홍보식, 「통일신라시대 울릉도의 고분 구조와 축조 배경」, 『嶺南考古學』 84, 2019.
- 홍영호, 「6~7세기 고고자료로 본 동해안과 울릉도」, 『이사부와 동해』 1, 2010.
- Bausch, I. R., “Prehistoric networks across the Korea Strait (5000-1000 BCE): ‘Early globalization’ during the Jomon period in northwest Kyushu?”, In T. Hodos (ed.), *The Routledge Handbook of Archaeology and Globalization*, London:

- Routledge, 2017.
- Boomert, A & Bright A, J., "Island Archaeology: In Search of a New Horizon", *Island Studies Journal* 2(1), 2007.
- Broodbank, C., *An Island Archaeology of the Early Cyclad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Isern, N., Zilhão, J., Fort, J., & Ammerman, A. J., "Modeling the role of voyaging in the coastal spread of the Early Neolithic in the West Mediterranea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4(5), 2017.
- Li, T., N. Chao, I. S. Zhushchikhovskaya, M. J. Hudson, & M. Robbeets, "Millet agriculture dispersed from Northeast China to the Russian Far East: Integrating archaeology, genetics, and linguistics". *Archaeological Research in Asia* 22 100177, 2020.
- Malkin, I., *A Small Greek World: Networks in the Ancient Mediterrane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3. 인터넷 웹사이트

동북아역사넷: <http://contents.nahf.or.kr/>

EXAMINING PREHISTORIC AND ANCIENT ULLEUNGDO ISLAND
IN ITS GEOGRAPHIC AND HISTORIC CONTEXT: WITH FOCUS
ON ITS ROLE IN TRANS-EAST SEA EXCHANGE

KO ILHONG (KO, IL HONG),
HAN JISUN (HAN, JI SUN),
CHOI YOUNGEUN (CHOI, YOUNG EUN)

Ulleungdo, along with its 44 attached islands, constitutes the only island group in the East Sea, and its importance in terms of its geopolitical location its role in the maritime transportation network have been noted. On the other hand, it has also often been regarded as an isolated island in the middle of the wide East Sea. This paper adopts a network perspective in order to explore how the creation of a 'link' to Ulleungdo, which can be viewed as an 'isolated node', may act to increase network connectivity in the western region of the Pan East Sea region and therefore create a 'small world'. First, in order to secure an in-depth understanding of maritime exchange in the western part of the Pan East Sea region (which includes Ulleungdo), a diachronic examination of the evidence of ancient exchange that took place along the East Coast was carried out. Then, focusing on Ulleungdo connectivity, the archaeological and textual evidence relating to Ulleungdo was reviewed, and Ulleungdo's status in the Pan East Sea exchange network was reconfirmed. In particular, the Silla tombs distributed

in Ulleungdo were analyzed and the background or their appearance, as well as their lineage, were reviewed. Isabu's conquest of this island in 512 CE and the state of the indigenous people of Ulleungdo prior to interaction with Silla was reviewed. Finally, the research history and related material evidence concerning the Pan East Sea route passing through Ulleungdo and Dokdo were reviewed. Through this, the understanding of the communication and connectivity of Ulleungdo was enhanced, and the role of the island in the dynamics of the East Sea exchange was promoted. In addition, a strategy for expanding the value of Ulleungdo's cultural heritage was suggested.

Key Words : Pan East Coast exchange, network, Ulleungdo, Usanguk, Silla, Stone Chamber Tomb, maritime, the East Sea route